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종교교육전공

강 희 섭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지도교수 한 춘 기

이 논문을 석사학위(M. Ed.)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종교교육전공

강 희 섭

강희섭의 석사(M. Ed.)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한 춘 기 (인)

심사위원 한 상 진 (인)

심사위원 주 성 준 (인)

2003년 12월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감사의 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기독교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한
춘기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도서와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격려해 주신 한상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적인 세밀한 지적과 더불어 선행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주성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 사랑과 조언으로 서로를 격려했던 동료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
니다. 늘 기도로 후원하며, 목회자의 건강을 염려해 준 추부중앙교회 성도
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곁에서 믿어주고 의지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힘들 때 밝은
웃음과 맑은 표정으로 힘을 준 세 아들 진규, 예찬, 명훈이게도 고마운 마음
을 전합니다.

목 차

감사의 글

I. 서	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범위	4
C.	선행연구 분석	7
II.	칼빈의 인간이해의 근거와 출발점	11
III.	칼빈의 인간이해	14
A.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전반적인 인간이해	14
B.	창조된 인간	21
1.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22
2.	인간창조의 특성	24
3.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27
C.	타락한 인간	32
1.	원죄 속에 있는 인간	35
2.	전적타락과 죄의 유전	38
3.	노예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	43
D.	구속된 인간	48

1. 청의 된 인간 / 51	
2. 성화 된 인간 / 56	
IV.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71	
A. 교육의 목적 / 76	
1. 하나님 중심의 삶 / 76	
2. 하나님의 형상 회복 / 79	
3. 성화의 삶 / 81	
B. 교육의 내용 / 85	
1. 자기부정 / 85	
2.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 90	
3. 십자가를 지는 것 / 94	
4. 내세에 대한 명상 / 97	
C. 교육의 방법 / 102	
D. 교육의 장 / 105	
1. 교회교육 / 106	
2. 가정교육 / 110	
3. 학교교육 / 111	
V. 결론 및 제언 116	
참 고 문 헌 / 122	

국문 요약

칼빈은 인간론을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기독교강요」 각 권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칼빈의 인간이해의 핵심은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된 인간이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칼빈이 인간창조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인간은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칭의 교리가 얻어내야 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이다.

이러한 칼빈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창조된 인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타락한 인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그리고 “구속된 인간”에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기부정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부정'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의 내용이 된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된 인간은 매일의 모든 삶을 성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명상”인데, 이 부분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칼빈의 교육방법은 엄격하고 강한 훈련이었으며, 단계별 다양한 교육방법이다. 그리고 가정·학교·교회의 연계교육을 추구하였다. 즉, 교육의 장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교회와 삶의 구체적 영역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다. 즉 교회교육을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연계적이고 연대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생명경시 사상의 여파로 인하여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는 전쟁, 인간복제, 인신매매 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과 대답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어온 질문이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 질문과 대답에 만족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을 한 인간 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견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는 꼭 풀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는 곧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됨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는 묻는 자이면서 동시에 대답을 하는 자이므로 그가 그 자신에게 내리는 대답은 불충분하기 쉬우며, 다시금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고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칼빈의 인간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신학적 인간론인데, ‘신학적 인간론이란 인간의 문제를 인간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神)과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해 보려고 하는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을 인간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러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규명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관련되어진 모든 주제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어 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칼빈이 말하는 신학적 인간이해는 휴머니즘의 인간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칼빈의 신학적 인간이해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명되는데 반하여 휴머니즘의 인간은 인간 자체를 근거로 하여 해명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有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성 속에 있는 인간을 그 근거로 삼아 해명되는 어떠한 인간이해도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간에 대한 설명은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라고 생각된다. 이 사상은 “인간은 많은 약점과 오류가 있을지라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善)을 가졌으며,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소유한 존재로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결국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있으며, 어떠한 것을 창조할 사명이 부여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인본주의는 인간자체에 대한 가치를 승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인간관에서 인간을 살펴본다면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

1) 이종성, 「신학적 인간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1), p.305.

2)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 한국성서협회, 1986), p.158.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을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과 기독교 인간관의 차이점은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사상은 기독교 인간이해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란이 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죄의 근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래서 본 연구자는 칼빈의 인간이해를 근거로 한 기독교 교육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칼빈의 인간이해를 연구하려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 존 칼빈만큼 전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으며, 칼빈의 신학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모체가 되기 때문이다.⁴⁾

3) 존 칼빈, 「기독교강요」 제 2권 1장 4절,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0), 이후로는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Institutes’로 표기하겠음.

4) 정성구,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p.8.

B.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칼빈의 인간이해를 연구하는데는 그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와 그의 초인간적인 노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주석’과 ‘신학논문집’을 참고한다. 그리고 그 외에 칼빈과 관련된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 강요’는 그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고 조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본 연구자는 주로 이 책을 중심으로 그것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 논문의 논지는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제 I 장에서는 서론적인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인간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II 장에서는 칼빈신학에 있어서 칼빈의 인간이해의 근거와 그 출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칼빈의 인간이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칼빈은 인간론을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기독교 강요」 각 권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저술하게 된 목적과 기독교강요의 각 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

간이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칼빈의 인간이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을 다루고자 한다.

“창조된 인간”은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인간창조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 속에 있는 인간’과, ‘전적타락과 죄의 유전’, 그리고 ‘노예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속된 인간”은 ‘칭의 된 인간’과 ‘성화 된 인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신학과 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임을 소개하면서 칼빈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의 장을 다루고자 한다.

앞서 III장에서 소개한 **창조된 인간**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타락한 인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그리고 **구속된 인간**에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1절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기부정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부정’(기독교강요 3부 7장)을 교육의 내용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강요 2부 6장)를 다루고자 한다.

3절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된 인간은 매일의 모든 삶을 성별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드러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기독교강요 3부 8장)과 “내세에 대한 명상”(기독교강요 3부 9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교육내용으로 삼고자한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칼빈의 교육방법을 세 가지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의 장에 있어서는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C. 선행 연구

칼빈의 인간이해에 대해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이 다수가 있다. 국내에 발표된 석사 논문으로 그 동안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인선은 칼빈의 인간이해를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인간론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인식과 인간 인식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죄로 인해 타락한 현재의 비참한 생활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생활로 가는 올바른 인간 인식의 근거를 서술하였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의 탁월함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칭의된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⁵⁾

이준양은 칼빈의 성장 및 교육, 그리고 회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칼빈이 사랑하던 제네바의 교회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타락 이전과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 죄의 의미와 본질을, 그리고 구원을 받고 회복된 인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구원의 과정과 그 이후 성화의 삶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칼빈의 인간론이 오늘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 상실과 비인간화의 위기에 직면한 오늘 현실에서 칼빈의 인간론에 귀

5) 최인선,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인간론”, 연세대학교 연휴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를 기울여 불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⁶⁾

김영근은 그의 논문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칼빈의 인간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칼빈의 인간론에서 나타난 윤리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는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스스로 완전한 윤리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윤리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예수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므로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영근은 칼빈이 인간의 윤리적 노력을 장려하였고, 윤리적 삶을 살도록 독려했다고 서술하면서, 일반적으로 전적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윤리적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칼빈의 인간이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⁷⁾

정규환은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빈을 소개하면서 먼저 칼빈 사상의 배경이 되는 에라스무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의 인간이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의 인간이해는 창조된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희망속에 있는 인간을 다루고 있다. 특히, 희망속에 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다루었으며, 인간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을 통해 부활의 희망속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활의 희망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6) 이준양, “칼빈의 인간이해”,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7) 김영근,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황성남은 칼빈의 인간이해를 다루면서 제네바 종교개혁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시대적 상황이란 온전한 종교개혁에 대한 도전과 기독교 전통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도전을 소개한 다음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된 인간, 완전을 향한 인간성숙의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앞서 시대적 상황을 소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즉, 칼빈이 인간이해를 저술함에 있어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게 했으며, 핍박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예정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약속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칼빈의 개혁을 제네바라는 한계 속에 묶어 놓아 그의 사상과 교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알미니우스 사상의 입장에서 칼빈의 인간이해를 수동적이고 정적인 믿음으로 제한시키고 있다.⁹⁾

김연희는 칼빈의 모든 사상은 신학사상을 기반으로 통일성 있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칼빈의 교육사상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그의 신학사상에 근거하여 생각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사상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그것은 예정의 목적인 성화에 이르러 더욱 확연해진다. 이러한 사상은 칼빈의 전체 사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 진리이다. 그는

8) 정규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신학적 인간이해”,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9) 황성남, “존 웨슬리와 존 칼빈의 인간이해 비교연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또한 칼빈이 교육의 방법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교육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이 목적보다 방법에 치중하게 될 때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의 본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⁰⁾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이라는 논지를 가지고 서술하고자 한다.

10) 김연희,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과 성화의 관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II. 칼빈의 인간이해의 근거와 출발점

칼빈신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신학의 목표와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인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起動)”(행 17:28)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恩賜)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칼빈신학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반드시 인간이해가 요청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또한 인간의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데 있다고 하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인간이해는 결코 생략되거나 간과될 수

11) Institutes., I . 1. 1.

없는 중요한 위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창조된 인간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타락한 인간이해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구속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방향과 질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칼빈의 인간이해는 칼빈신학의 중심적 주제임에 틀림없다.

칼빈은 기독교강요는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실제적 안내서가 되게 하려는 관심에서 저술하였다. 사변적 이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실천을 전제로 저술했다는 말이다. 신앙이 단순한 고백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실천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면 그 실천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마련이다. 기독교강요에서 직접적으로 인간이해를 다룬 부분은 많지 않으나 인간에게는 칼빈의 독특한 인식론 즉, 하나님과 인간의 상관성을 강조한 점 때문에도 기독교강요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전제로서 또는 간접적인 언명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즉, 칼빈의 인간이해는 그의 신학체계에서 주변적인 위치가 아니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칼빈신학의 궁극적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해를 인간 편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해로부터 전개해 나간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참된 인간이해가 불가능하다.”¹²⁾ 그러므로 하나님 이해로부터만 인

간이해는 그 가능성의 터전과 방향을 제공받게 된다.

칼빈 신학의 결정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칼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거울”(Spigel)로서 이해한다.¹³⁾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인간이해를 그리스도로부터 전개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행동과 사고에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¹⁴⁾

칼빈의 인간이해는 성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결코 실존이나 자기이해를 분석하거나 다른 인간과의 비교를 토대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칼빈의 신학적 인간이해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며 주님이라는 성경말씀의 근거를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한다. 인간의 범죄로 우매해진 지성의 한계성은 성경을 인간이해의 근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12) Institutes., I . 1. 2.

13)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33.

14) Institutes., I . 1. 2.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창조주와의 관계속에서 인간을 파악할 때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Ⅲ. 칼빈의 인간이해

A.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전반적인 인간이해

칼빈의 신학사상은 그의 전 생애를 바쳐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체계화한 「기독교강요」로부터 알 수 있다. 칼빈은 인간론을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기독교강요」 각 권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첫째,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게 순교당한 형제들의 당치도 않은 모욕을 변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통을 같이 하는 많은 가련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외국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¹⁵⁾

그러나 「기독교강요」의 실제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었다.¹⁶⁾ 그래서 그는 서방 기독교권이 다같이 고백하는 신앙고백 즉 사도신경을 표준으로 택해서

15)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3), p.146.

16) Thomas M. Lindsay, 「종교개혁사 II」 이형기·차중순 공역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사, 1991), p. 122.

여기에 비교해 볼 때 개신교가 로마주의보다 훨씬 더 참된 정통주의 입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이 신조의 권위는 어떠한 회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부터 직접 솟아났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사도신경의 자생적인 권위를 자신의 기독교 강요의 근본으로 삼았다.¹⁷⁾

「기독교강요」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요 제 1부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를 소개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이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다. 제 3부는 성령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수단”, 곧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 4부에서는 거룩한 교회와 그 교회의 본성과 징표를 다룬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상호 관계적 연결 속에서 칼빈의 신학체계인 하나님 중심인 사교체계를 펼쳐 나간다.

강요 제 1부의 내용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룬다. 하나님은 자신을, 작은 우주인 인간을 통하여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 큰 우주인 세상을 통하여서는 자연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사회를 섭리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셨다.¹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종교의 씨앗”¹⁹⁾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 있는데 인간의 무지 목매와 헛된 교만과 고집에서 그 씨앗을 배양해 열매를 거두는 인간이 극히 드물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지식에

17) Institutes., p. 32.

18) Institutes., I . 5. 6.

19) Institutes., I . 4. 1.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지식인 것이다. 신지식의 내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강요 제 2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순결한 상태를 인간에게 주셨으나 오늘날의 상황은 최초의 인간모습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간은 창조 시와는 달리 고위적인 자세로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경건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대담스럽고도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동시에 인간은 흠으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자만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으로 범죄 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자만심이었고, 범죄이후 인간의 의지와 이성은 모두 더럽혀졌다.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에게 죽음을 초래했으며 인간을 위해 주어졌던 모든 자연질서를 그르쳐 놓아 환경의 악화를 가져왔고, 후손 전체에게는 불결의 씨앗이 되어 온 인류를 감염시켜 인간 본질 자체가 부패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모든 천국의 일로부터 거부당하고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믿음, 하나님과 이웃 사랑, 거룩함에 대한 동경,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낮선 이방인 같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선을 행할 자

유의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외관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²⁰⁾

이러한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로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은총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불복종으로 자신을 망쳐 온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복종에 의해 상황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참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어 아담의 본성을 지나시고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받으시게 된 것이다.²¹⁾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의 벌 아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²²⁾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완성하신 가장 큰 예언자요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는 위대한 왕이요 이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 즉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남의 역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의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얻게 된다.

20) Institutes., II. 2. 6.

21) Institutes., II. 3. 5.

22) Institutes., II. 12. 3.

강요 제 3부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완전한 인격적 존재이기도 하다(요 14:16, 26. 16:13). 보혜사 성령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주는 자이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자들과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를 증거 해 주는 자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요 14:16,17)”으로서 믿는 자들을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이다.²³⁾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가? 칼빈은 이에 대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 하시며 말씀의 이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말씀이 없이는 신앙도 없고 말씀과 신앙 사이에는 영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²⁴⁾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은 아무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만 확립된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알려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고전 12:3). 또한 인간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본래의 인간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간이라고 하여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인이면서 죄인인 까닭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성화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²⁵⁾

23) Institutes., II. 1. 1.

24) Institutes., II. 2. 6.

또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마땅한 은혜의 보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기독교인은 이런 의미에서 질적인 변화를 계속 일으켜야 하는데, 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성화 그것은 수도원 안으로 내향하는 성화가 아니고 전 삶의 영역에서 즉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혹은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사귄을 갖는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자기부정의 삶이 었듯이 우리에게도 자기부정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강조한다.²⁶⁾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 영광에로의 부활 그리고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요 제 4부의 내용은 구원의 수단인 교회로서, 하나님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 및 교육 활동을 위하여 그 방편으로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그

25)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 39.

26) Institutes., III. 8. 1.

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다”²⁷⁾고 한 칼빈의 말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 수가 있다.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살핌에 있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귄이라고 보았고, 교회의 성립요건이 되는 교회의 표지는 말씀사역과 성례집행으로 보았다. 이것으로 신자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목사를 위시한 집사, 교사, 장로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끝으로 국가통치를 다루었다.

27) Institutes., IV. 1. 3.

B. 창조된 인간

인간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기원의 책'인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창세기 초두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강조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주는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창 1:1,31, 2:1, 요 1:1,3, 골 1:16,17, 히 11:3).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함이 있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말씀에 의해 존재케 되는 것이다(시 33:6,9). 둘째, 창조의 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다. 피조적 실체 속에 내재하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다양한 생명체를 산출하라는 하나의 총체적인 명령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구절을 만나게 된다(창 1:3, 6, 9, 11, 14, 20, 24, 26, 29). 하나님은 창조사역의 매 순간 개입하신 것이다. 셋째, 천지창조에 있어서 어떤 순서와 진전이 있다는 사실이다. 삼라만상은 전 포괄적인 하나의 명령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창조사역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로의 절정을 향해 움직이는 의도적인 순서와 진전이 있다.²⁸⁾

특히 세 번째 관점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의 근원에 대한 설명(1:1)은 인간창조(1:26-30)쪽으로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지와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창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창조의 방법까지 관설되어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주제 곧 인간창조는 더욱 상론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

28) 최홍석, 「사람이 무엇이관대」 (총신대학 출판부, 1991), p. 17.

원에 대한 성경 자체의 관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이 모든 창조 사역에 있어서 목적과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남는다.²⁹⁾

칼빈은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묘사한다. 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된 인간이해는 논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하는 질문을 던져 보면서 이에 대하여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창조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창세기 2장에서 관심을 일으키는 부분은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금령과 관련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며, 머리이다. 그러한 자로서의 아담에게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진다. 첫째는, 에덴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일이며(2:5), 둘째는,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일이다(2:16). 전자는 그와 땅의 관계를 알게 하고, 후자는 그와 하늘의 관계를 보여준다. 땅에 대한 사명 곧 경작하고 개발할 뿐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은 하늘과 관계, 곧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종(信從)하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계명을 따를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두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다. 피조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에게 순복해야 하며, 창조주께 순복할 때에만 피조물에 대한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롬 1:21-25). 땅의 사명과 하늘의 사명,

29) Ibid., p. 18.

노동과 기도, 문화와 종교는 본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창조
의 면류관인 인간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참된 문화는 신적인
소명의 성취여야 하며 참된 종교는 전 생활에 생명을 부여할 뿐 아니
라, 인생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원리여야만
한다.³⁰⁾

여기서 최홍석 교수는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참된 순종과 자발적
인 헌신이 요청되는 존재'로 인간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위펠드는 칼빈 요리문답의 제 1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앎으
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므로 그에게
서 인간의 행복을 발견하게 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였다.³¹⁾

즉, 창조사역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돌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리게 될 때, 창조질서
속에서 그의 올바른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칼빈 또한 창조된 인간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
었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으
로 치장되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 되었고, 눈을
외부로 돌려 다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피조물 일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인격체이다. 인격체라

30) Ibid., pp.18-19.

31)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65.

함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임을 가리킨다. 하나의 인격체는 결단력을 지니고 있고, 목적을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흠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창 2:7, 18:27). 왜냐하면 “흠집에 살며”(욥 4:19) 부분적으로 흠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

2. 인간창조의 특성

기독교 인간관은 창조주 신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성격이 규정된다. 인간은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의존적이다.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이러한 인간의 의존적 국면을 강조한 적이 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8).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심지어 로마서의 토기장이 비유(롬 9:20-24)를 보면, 인간은 그릇과 같아서 그를 지은 자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항변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이 전혀 피동적인 존재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인간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에 대해 가부간 결단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32) Institutes., I . 15. 1.

규정하고 있다(수 24:1, 고후 5:20, 갈 6:7,8).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 사실 인간은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양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토기와 같이 만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인격적 존재임을 지적하고 있다.³³⁾

인간은 모든 계획과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은총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행한 바,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의 능하신 손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힘쓸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의 구성에 대하여 칼빈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고 있으나, 칼빈의 영혼관을 자세히 보면 그의 사상은 헬라적 이원론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다.³⁴⁾

칼빈은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을 더 존중히 여긴다. 칼빈의 견해는, 고대 철학자들처럼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하다는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나 영과 혼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³⁵⁾

33) 최홍석, op. cit., pp. 21-22.

34) W.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기독교문화시협회, 1992), p.75.

35) Institutes., I . 15. 6.

칼빈의 인간 구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적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또한 영혼과 육체의 상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말은 가끔 “영”(靈, spirit)이라고 불린다. 확실히 양심은 선악을 가려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는데, 바로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불멸적 실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수(野獸)들이 소유하는 감각은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혹은 육체에 속한 물질적인 것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흠 집”에 살다가(욥 4:19), 죽을 때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각각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³⁶⁾

칼빈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인간창조의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36) Institutes., I . 15. 2.

3.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에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였다(창 1:17)”고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았다.

창세기 1:1-2:24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행위(創造行爲)는 세 가지 용어 즉 가르고, 만들고, 빛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빛과 어둠을 갈라 시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수직적 가름과 물과 물의 수평적 가름을 통하여 공간을 만드셨다.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시간의 표로 만들었다. 이 창조의 테두리 안에다가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후에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또 인간을 빚으셨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創造事役)의 왕관이다. 인간은 이른바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며, 이성적 동물이다.³⁸⁾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원시상태(原始狀態)를 「하나님 형상」(Imago Dei)대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⁹⁾

칼빈이 인간창조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흠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37) 오인탁, “기독교 인간학 사설”, 「교회와 신학, 제 XIII집」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1980), p. 230.

38) Ibid., p. 232.

39) 정정숙, “기독교 가정의 신학적 기초”, 「개혁신학 제 V집」 (서울 : 대한예수교 장회신신학교, 1979), p. 176.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만물들과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창 1:26,27 9:6, 약 3:9).⁴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이해(人間理解)의 핵심이다. 신학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된 지식(知識)과 의(義)와 성(聖)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성경에는 ‘심히 좋게’(창 1:31), ‘정직하게’(전 7:29), ‘새 지식’(골 3:10), ‘의와 성’(엡 4:24)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도덕적(道德的) 하나님의 형상 또는 비본질적(非本質的)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⁴²⁾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니, 그 형상인 인간도 영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영성(靈性) 혹은 인격의 속성들로서 인간의 본질적 소질에 속하는 요소들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다. 영의 근본적 속성은 이성(理性), 양심(良心), 의지(意志)이다. 영은 이성적인 고로 자유동작자(自由動作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심에 있어서 영이신 자기의 성질에 속하는 속성을 부여하셨다.⁴³⁾

칼빈에 따르면 태초에 인간은 완전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창조되었

40)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3), p.166.

41) Ibid.

42) Ibid.

43) Charles Hodgs,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p. 97.

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넘어서는 창조의 걸작품”으로 묘사된다. 인간이 그렇게 고귀하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육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⁴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동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응시하며, 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시키기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또 뻗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 ⁴⁵⁾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종류의 동물보다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⁴⁶⁾

“형상”(Imago)이라는 말과 “모양”(Similitudo)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말

44) 이오갑, 「칼빈신학 해설」 (대한기독교서회, 1998), p.168.

45) Institutes., I . 15. 3.

46) Ibid.

의 차이점을 까닭 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 문제 자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⁴⁷⁾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으로, 설명을 위해서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심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세는 조금 후에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지만 “모양”에 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⁴⁸⁾ 즉, 칼빈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전통적인 스콜라주의자들의 견해⁴⁹⁾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말을, 칼빈은 모든 종류의 동물보다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

47) Ibid.

48) Ibid.

49) 전통적으로는 모양(Similitudo)과 형상(Imago)를 구분하여 전자는 타락시 소멸되었으나, 후자는 남아있다는 견해.

에는 올바른 이해력과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키고 일체의 감각을 바른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또한 아담의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나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⁵⁰⁾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 이후 인간의 '오염된 본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¹⁾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 제 2의 아담이라고 부른다.⁵²⁾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칼빈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계급조직과 여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모든 예속을 인정치 않으며, 특히 모든 종교적인 계급주의에 반대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되어야 하며 오직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칼빈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이 인간자신을 바로 알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50) Ibid.

51) Institutes., I. 15. 4.

52) Ibid.

C. 타락한 인간

칼빈은 원죄설에 바탕을 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기독교강요」에서 “아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질서를 망쳐 놓았다. 그의 불복종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되었다”(롬 5:12)고 하면서 분명히 죄는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에게 유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족함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으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즉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이와 같은 타락은 모든 부분에 미치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부패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⁵³⁾ 칼빈은 이 점을 매우 중시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타락을 보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아담의 책임이요, 우리의 허물임을 강조한다. 즉 인간이 타락한 것은 선천적이지만 아담이나 우리가 그 타락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유래된 것이 아니다. 죄는 태초로부터 이식된 속성이라기 보다 인간에게 일어난 질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본성으로부터(하나님)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⁵⁴⁾ 결국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구약의 계명들도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약의 증거들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은 이 문제를 길게 논하여 논적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 요점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란

53) Institutes., I . 15. 1.

54)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 아가페문화사 1998), p. 116.

전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타락이자 완전히 죽은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⁵⁵⁾

칼빈은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보았다. 아담이 자신의 위치, 즉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었건만 그는 자기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 나무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그가 자기 처지에 만족하여 악한 정욕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약속과 그와는 반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죽음이 있으리라고 한 무서운 경고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다.⁵⁶⁾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벌을 받은 것은, 어거스틴의 처음의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라고 인정하면서 불순종의 타락의 시초였다고 말한다.

칼빈은 타락한 상태를 상론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 가혹한 단정을 내린다.

55) Ibid., p. 120.

56) Institutes., II. 1.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이다.⁵⁷⁾

칼빈이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고의적인 반역 속에서 산다고 하였다. 여기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반역자이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자연적인 본성이 되었다.⁵⁸⁾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중의 본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른 하나는 그 본성이 부패한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패가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자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지고 의지는 부패되었다. 칼빈은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에 관하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지성과 의지의 기능이 잔존하여 지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 지성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의지는 부패하였다. 그러

57) Institutes., I . 15. 4.

58) Institutes., I . 6. 4.

므로 인간의 지성은 지성을 추구하며 발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⁵⁹⁾

창조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왜 고통 당하며 신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원죄 속에 있는 인간, 전적 타락과 죄의 유전, 그리고 노예 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죄 속에 있는 인간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오용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였다.⁶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의 이탈이며 하나님 형상의 상실을 의미한다.⁶¹⁾ 이와 같이 최초의 죄가 바로 원죄이다.⁶²⁾

칼빈은 원죄의 정체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며 영혼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에(갈 5:19)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것에서 나오는 행위, 예컨대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등을(갈 5:19-21) 그는 “죄의 열매”라고 부른

59) Institutes., II. 2. 18.

60) Institutes., II. 1. 4.

61) Ibid.

62) Institutes., II. 1. 5.

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보통 “죄들”이라고 부르며 바울 역시 그렇게 부른다.⁶³⁾

이 죄는 인간의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부패와 악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의 전향이 인간의 원죄(Peccatum Originale)”⁶⁴⁾라고 설명한 니젤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원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을 “죄의 사슬아래 묶어 두고” 있으며, 인간의 전성향(全性向)속에 약간의 의성(義性)도 남아 있지 않다. 비록 원죄가 상세한 죄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원죄가 인간 속에 없다는 증거는 안 된다.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안에는 확실히 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죄 받고 부패한 인류에 속하기 때문이다.⁶⁵⁾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라고 말한 것은(엡 2:3), 모든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이 “본질”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에게서 부패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죽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를 부패시키고, 그것이 모든 후손에게까지 감염되고 만연된 것이다. 우리의 하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 3:6),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모두 그 앞에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신다(요 3:5).⁶⁶⁾

원죄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본 펠라기우스(Pelagius)는 “어

63) Institutes., II. 1. 8.

64) W.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76.

65) Ibid., p.77.

66) Institutes., II. 1. 6.

떻게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이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분명히 증거 해 주고 있다(롬 5:12, 엡 2:3, 요 3:6).⁶⁷⁾

그러자 그는 죄의 전달이 자손 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의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렇다면 모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아무리 타락했어도 모든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여전히 도덕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펠라기우스 이단설의 핵심이다.⁶⁸⁾

그러나 만약 아담의 죄가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도 모방에 의해 누리는 혜택이란 말인가? 성경은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고 말한다(롬 5:17). 죄와 죽음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잠입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되며, 의와 생명은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이다(고전 15:22).⁶⁹⁾

지금까지 원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타락과 죄의 유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고찰 해 보도록 한다.

67) 김준수, 「디지털 기독교강요」 (서울 : 규장문화사, 2002), pp. 144-145.

68) Ibid., p. 145.

69) Ibid.

2. 전적 타락과 죄의 유전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 James Mackinnon은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反逆)이며, 불순종(不順從)의 결과이다. 이것은 불신앙(不信仰)으로부터 연유하였다”⁷⁰⁾고 말하고 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타락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⁷¹⁾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저급한 욕망이 아담을 유혹했으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 바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심정(心情)의 밑바닥에까지 침투한 것이다.⁷²⁾

칼빈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다음과 같이 증언들을 의지해 없애고자 했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들이 되었다(시 14:1-3, 5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이는 일에만 사용된다(시 5:9).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시 140:3).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빠르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사 59:7).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롬 3:10-16).”

이런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그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전체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어느 한

70) James Mackinnon,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 Russell & Russell Inc., 1962), p. 231.

71) Niesel., Op. cit., p. 81.

72) Institutes., II. 1. 9.

시대의 타락한 도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의 변함없는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에 휩싸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려 한 것이었다.⁷³⁾

타락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지 억지로 혹은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심령의 간절한 성향에 의한 것이지 강요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유발된 것이지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하여 악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으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정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⁷⁴⁾

칼빈이 '전적'(Total)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으며, 그 정도가 너무 엄청나 인간의 힘으로서 극복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전적타락은 인간의 영적 분별력에 제한을 가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분별할 수 없게 한다.⁷⁵⁾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도 구원을 맹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을 인식하기 위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73) 휴 T. 커어 편, 「칼빈의 기독교강요」 유원열 역, (서울 : 기독교 연합신문사), pp.84-85.

74) Ibid., pp. 86-87.

75) Institutes., II. 2. 18~21.

통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타락은 어떻게 유전되는가? 칼빈은 원죄가 아담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아담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유전적 부패”를 주장한다.⁷⁶⁾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천성을 잃었을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천성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천성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원죄의 유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 전염은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염은 처음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성을 가지며, 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⁷⁷⁾

자녀는 부모의 순결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므로(참조, 고전 7:14) 경건한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펠라기우스파는 말한다. 그러나 이 궤변에 대한 논박은 매우 쉬운 일이다. 자녀는 부모의 영적 중생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번식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76) Institutes., II. 1. 7.

77) Benoit는 여기서 요한복음 3:6에 대한 칼빈의 주해를 인용한다. 그 주해에서는, 원죄는 육신의 출생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부패하게 된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던 은사들을 아담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라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과 같이,⁷⁸⁾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사람은 썩은 본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가 아니라 유죄한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부모의 성질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받은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죄책은 자연에서 오고 성결은 초자연적 은총에서 오기 때문이다.⁷⁹⁾

칼빈은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죄가 전가되면서 우리 안에 남은 것은 육육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썩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시초의 의의 결핍”을 원죄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의 의미를 전적으로 이 정의에 포함시키지만 그 위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⁸⁰⁾ 이는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

78) Augustine, *“Regeneratus non regenerat filios carnis, sed generat”*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육의 아들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낳는 것이다”).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 II. xl. 45 (MPL 44.407; 영역, NPNFV. 253).

79) Institutes., II. 1. 7.

80) 멜랑히톤은 원죄를 일컫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선천적 성향과 어떤 선천적 충동 및 힘(*genialis impetus et energia*)”이라고 한다. 그는 불꽃이 위로 향하는 것과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따라서 스콜라파와 같이 원죄와 실제의 죄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원죄는 “원초의 의(義)의 결핍”이라는 스콜라파의 주장에 찬성하면서도 그는 원죄의 정의로서는 미흡하다고 역설하며, 죄는 기본적인 자애(自愛)에서

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원죄를 “욕욕”이라고⁸¹⁾ 말한 사람들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욕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적으로 인간은 욕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러하다.⁸²⁾

칼빈은 원죄의 ‘유전설’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만민이 죄를 입게 된다는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죄의 유전설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실존적 삶 속에서 저지르는 죄의 실제성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것이다.⁸³⁾

결론적으로 전적타락과 죄의 유전을 통해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와 유전

생기는 적극적인 불경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81) 어거스틴은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라는 논문에서 concupiscence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그 말은 “우리의 죄 많은 육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였다(I. xxxiv) (MPL 44. 435; 영역, NPNF V. 277).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문제를 논하면서 Peter Lombard는 원죄를 “fomes peccati, id est, concupiscentia”(“죄의 불씨, 즉 욕욕”)이라고 형용하고, 원죄는 “(아담을 통하여 concupiscence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선천적인 죄과”라고 부른다.

82) Ibid.

83) Institutes., II. 1. 7.

을 통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비참한 상태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3. 노예 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 능력이 죄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해왔다. 그런데 철학자들 대부분은 선행과 악행을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철학자들의 잘못된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이성만은 바른 행위를 위한 충분한 인
도자이며, 의지는 때로 감각의 선동을 받아 악한 일을 하기도 하
지만, 자유로운 선택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즐겨 이성에 순종하
며 결코 그 일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⁸⁴⁾

한마디로 아직 의지가 꺾이지 살아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대하여 교부들도 거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갔다. 죄 때문에 이성은 중상을 입었고 의지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고 말하면서도 이들 대부분은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 했다.

예를 들면 크리소스톰(Cyrysostom)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84) 김준수, op. cit., p. 149.

우리의 것을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제롬(Jerome)도 비슷한 말을 한다.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 우리가 힘써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⁸⁵⁾ 저들은 결국 사람은 감성 부분에서만 완전부패하고 이성과 의지는 대체로 손상이 없다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외치게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욕망이 의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 상태라는 것이다(고후 3:17, 요 15:5).⁸⁶⁾

그래서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기독교 최대 교훈이라고 주장한다. “겸손은 교만이나 자랑을 삼가는 정도가 아니다. 겸손은 겸손 외에는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간은 원래 사탄이다. 인간성의 능력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스럽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사람이 만약 자유의지를 조금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고 자기 교만에 빠져 망해버리게 될 것이다(창 3:5, 렘 17:5)⁸⁷⁾

칼빈은 “자유의지는 노예로 포로 당하였으므로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할 힘도 없다.”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이는 속박자이며, 구급자인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85) Ibid., p. 150.

86) Ibid.

87) Ibi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가 되지 않는 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⁸⁸⁾

그래서 칼빈은 의지가 부자유하다고 본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욕망이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다.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당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은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 사람은 자유를 악용하여 자기와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이를 행할 힘도 없다.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다. 자유의지는 은총에 의해서 확립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⁸⁹⁾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자연인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토렌스는 이성의 분별력과 의지의 판단능력이 파손당해 창조당시 수여 받은 의로움, 정직함, 선은 물론이요 의지도 변하고 말았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상실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⁹⁰⁾

88) Institutes., II. 2. 8.

89) Ibid.

90)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 Lutterworth, 1952), p. 88.

칼빈은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은총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이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⁹¹⁾

펠라기우스를 비롯하여 에라스무스 등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도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루터를 따라서 칼빈도 노예의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⁹²⁾

칼빈은 사람이 죄에 노예가 되어 본성만으로는 선을 사모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발적으로 짓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로 비교하였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로 비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온전하고 숙련된 기수이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된다.⁹³⁾

칼빈이 인간의 전적타락, 원죄의 유전, 노예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를 언급하는 것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을 받기로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91) Institutes., II. 2. 10.

92)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7), p.118.

93) Institutes., II. 4. 1.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에서 원죄 속에 있는 인간, 전적타락과 죄의 유전, 그리고 노예신분 하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간의 전적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인간은 겸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D. 구속된 인간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救贖)하셔서 창세전(創世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엡 1:4, 딤후 1:9),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⁹⁴⁾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贖罪事役)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였다.⁹⁵⁾

이에 반하여 구속에 대한 그릇된 현대신학이 있다. 서철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술라이어막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전통적 신학의 가르침을 떠나 구속을 죄와 사망에서의 속량이 아니라 예수가 갖는 무한한 신의식에 신자들을 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리하여 구속주는 신자들을 자기의 행복에 수납한다. 이것을 구속주의 화해행동으로 여겼다. 이처럼 술라이어막허는 구속이 죄와 사망에서 사냄이 아니라, 신비적인 의식행동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⁹⁶⁾

둘째, 릿츨(Albrecht Ritschl)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윤리적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와 교

94) 정정숙, op. cit., p. 168.

95) Ibid., p. 169.

96) 서철원, 「기독교론」 (서울 : 홍신대학교출판부, 2000), pp. 137-138.

제하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칭의는 죄과와 형벌의 제거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아니라, 죄의식을 제거하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칭의의 결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 화해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새 관계에 서므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화평의 관계로 바뀌고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이 릿출의 견해도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되므로 배척된다. 객관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죄인이 주관적 변화로만 보았다. 성경에 의하면 신인관계의 파괴는 죄 때문이고, 이 죄에서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⁹⁷⁾

셋째, 카알 발트(Karl Barth)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신인연합을 통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구원은 죄에서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동침하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으므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에의 동참을 이룬다. 이것이 화해이다. 이 발트의 견해도 성경과 배치되고, 성경적 근거가 없으므로 배척된다.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여 신화하는 것은 원죄로 정죄 되었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정면 배치된다.⁹⁸⁾

넷째, K. 라이너는 20세기 로마교회 신학자로서 성육신의 목적을 죄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인간의 신되기(神化)를 위해 신적 존재의 분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보받아 신화하는 것이다. 로마교회는 모든 구원과정의 종국을 인간의 신화

97) Ibid., p. 138.

98) Ibid., pp. 138-139.

에 둔다. 이것은 성경이 원죄로 정죄한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으로서 성경과 정면 배치된다. 죄에서의 구속은 없어지고 인간의 양양만 구하는 신학은 배척되어야 한다.⁹⁹⁾

칼빈에 의하면 참 인간은 언제 가능케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이후로는 단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된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실 때만 가능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의 모든 유익까지도 즐기게 될 때, 그는 점차 성화의 삶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¹⁰⁰⁾

즉, 칼빈은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위를 제외하고는 인간 역사속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부터 구속된 인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 소개된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칭의론’이 먼저 오고, 다음으로 ‘성화론’을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개 방식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화론’을 3부 3장에서 10장까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으로 ‘칭의론’을 3부 11장에서 18장까지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이것은

99) Ibid., p. 139.

100) 박해경, op.cit., p. 121.

칼빈이 교육적인 순서로 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당시 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였다. 그런데 칼빈이 칭의론을 소개하면서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는 반문을 하게 된다. 칼빈은 사전에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교육적인 순서로 '성화론'을 먼저 기록했다고 여겨진다.

1. 칭의 된 인간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이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칭의는 사랑 때문에 거저 주시는 사면장이다.¹⁰¹⁾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칭의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얻은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이다.¹⁰²⁾ 둘째로 칭의는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놀라운

101) 김준수, op., cit. p. 336.

102) Institutes., III. 11. 2.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셨다.¹⁰³⁾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로 말씀하고 있다.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¹⁰⁴⁾

칭의 교리가 얻어내야 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칭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칭의는 아무 것도 아니다.¹⁰⁵⁾ 바울은 로마서 3:25-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예수를 ...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롬 3:25-28).

여기서 바울은 첫째,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것이다. 둘째, 오직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거저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지 않

103) Institutes., III. 11. 23.

104) Ibid.

105) 김준수, op., cit. p. 351.

으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절대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¹⁰⁶⁾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칭의는 신앙과 행위의 혼합이 아니다.¹⁰⁷⁾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있다.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8,9).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행위에 의한 의를 결코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롬 4:2). 그러므로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¹⁰⁸⁾

칼빈은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면,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화함에 있어서 인간이 이룬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6) Ibid., p. 352.

107) Institutes., III. 11. 13.

108) Ibid.

의인으로 나타날 정도로 완전한 복종을 하지 못한다. 하물며 성화된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¹⁰⁹⁾

한편 칼빈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비난하는 교황주의자들의 거짓중상에 대해 반박한다.

첫째, 이신득의 교리가 선행을 폐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칼빈의 교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 없이 성립되는 칭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신득의의 교리를 요약하면, 믿음과 선행은 꼭 같이 다니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칭의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만 있다는 것이다.¹¹⁰⁾

둘째,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선행에 대한 열심히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비방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들은 아마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주신 힘으로 행한 우리의 선행에 상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너그러우심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듯하다. 아무튼 저들의 비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만 갖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첫째는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노동에 값을 매겨 팔려고 하는 짓은 참으로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다. 사람의 선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경배와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상을 소망이 전혀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리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자

109) Institutes., III. 12. 2.

110) 김준수, op., cit. p. 373.

극하는 가장 강렬한 충동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기 행동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것이다.¹¹¹⁾

마지막 세 번째 비방은, 행위랑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짓게 충동질하지 않겠는가? 이에 칼빈은 이런 비방이야말로 비방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의와 구원을 우리로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피를 흘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빌 3:8). 우리의 죄책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것으로는 대속할 수 없다. 우리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를 삼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¹¹²⁾

111) Ibid., pp. 374-375.

112) Ibid., p. 378.

이제 칭의에 대해서 정리 해보자.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 행동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사죄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그러기에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한편, 칼빈은 신앙의 열매로서 오는 행함의 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행함을 의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칭의된 인간이 그의 자유 속에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봉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기에 칼빈은 아무런 곤란을 느끼지 않고 선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어느 신학체계에서 보다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2. 성화 된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곧 성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곧 성화된 삶을 성도들에게 명하신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 20:26)고 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고 하셨다. 성도들의 성화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러한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¹¹³⁾

성화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람은 죄로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죄의 오염은 원죄의 결과로서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부패된 성향을 말한다. 사람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거룩하여야 할 존재임을 말해준다. 사람이 거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은 현재는 거룩하지 않음을 그 말속에 내포하고 있다. 사람이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이다. **둘째로 성화는 인간본성의 갱신을 의미한다.** 성화는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곧 성화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성화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는 구원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¹¹⁴⁾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기독교강요 3부 14장이하에서 선행론을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중생을 통

113) 한춘기, 「교회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pp. 92-93.

114) Ibid., pp. 96-97.

한 자기부인의 삶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가 선행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지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의 선행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즉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점이다. 그는 가르치기를,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상주시는 것이라고 한다.¹¹⁵⁾

이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선행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A) 성도의 내적투쟁(영과 육의 갈등)

칼빈이 사용하고 있는 영·육의 개념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내적 투쟁이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고찰해 보자. ‘육(Flesh)’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몸(Body)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Soul)과 영혼의 각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¹¹⁶⁾

칼빈에 의하면 영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로 인해서 아주 잘 개조된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영혼의 부분을 지시한다.¹¹⁷⁾

갈라디아서에는 육(Flesh)이 타락한 인간본성을 나타내는 반면, 영(Spirit)은 ‘갱신된 성질 혹은 중생의 은혜’로 규정하고 있다.¹¹⁸⁾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Spirit)은, 자연인의 구조에서 몸(Body)과 대조되는

115)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생명의 말씀사, 2000), pp.189-190.

116) Ibid., pp. 191-912.

117)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7권 로마서」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 성서교제간행사, 1992), pp.219-220.

118)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3권 요한복음 3장 6절」 p. 100.

영혼(Soul)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성품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Spirit)이라는 용어가 영혼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역설하고 있다.¹¹⁹⁾

지금까지 논술했던 영과 육에 관한 모든 이해를 정리하면, 영(Spirit)이란 중생한 성도에게 형성된 새로운 성품으로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며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개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빛나는 영혼의 부분을 의미하며, 주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진 반면,¹²⁰⁾ 육은 인간이 모태로부터 갖고 나온 선천적인 성품으로서 저급하고 세속적이어서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그 안에 타다 남은 죄의 부스러기로도 말미암아 악한 충동을 일으키며’,¹²¹⁾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율법을 반대하는 옛 사람의 본성’을 가르키는 것이다.¹²²⁾

그러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두 본성으로 인한 투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칼빈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영과 육의 내적 투쟁은, 이미 중생한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부패한 정욕과 투쟁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신자일지라도 진지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술했던 바와 같이, 중생한 신자일지라도 죄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²³⁾

119)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7권 로마서 7장 14절」 pp.219-220.

120) Ibid.

121)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7권 로마서 7장 18절」 pp.225-226.

122)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8권 갈라디아서 5장 17절」 pp.634-635.

123)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7권 로마서 7장 14절」 pp.219-220.

그리스도인의 생은 곧 성화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칭의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하나님께 용납되었지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죄에 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 안에서, 그의 영이 주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육(Flesh)의 잔재들이 그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¹²⁴⁾ 다시 말해서 성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투쟁(영·육)은 “자연인의 본성에 속해 있는 육의 잔재들이, 성령의 은혜로 창조된 새로운 본성과,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다.”¹²⁵⁾

영은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육신의 그것은 반대방향으로 이끌어간다.¹²⁶⁾

그러면 이와 같은 내적 갈등과 투쟁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육은 옛사람의 성품으로서,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고하게 반역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바 있다. 그러므로 육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¹²⁷⁾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자기의 자유의지로서는 악을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투쟁 속에서 영혼의 기능들(지성과 의지)은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칼빈은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될 때, 반드시 그들의 주요한 기능들을 지배한다고 역설한

124) Institutes., III. 3. 10.

125) Ibid.

126)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8권 갈라디아서 5장 17절」 pp.634-635.

127)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8권 갈라디아서 5장 16절」 p.634.

다.¹²⁸⁾

인간은 그의 주요한 본성에 비추어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육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여 더럽고 추한 욕정으로 좇으며, 의지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 정욕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그러한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반면에 영을 쫓아가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의 법을 지각하며, 의지 또한 바른 결단을 행사한다.¹²⁹⁾

결국 인간은 어느 한편으로 택하여 행동하게 되며, 그의 존재가 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되어 중립적인 상태는 없는 것이 된다.

회복은 어느 한 순간에 혹은 하루, 일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때로는 느린 것 같은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 안에서 육체의 부패를 씻으시며 죄를 척결하시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에게 성전으로 헌신하게 하며, 그 정신을 진정한 경건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전과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투쟁은 육체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¹³⁰⁾

성화는 새롭게 창조된 칭의의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삶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 종국의 생활까지 일

128)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제 7권 로마서 8장 9절」 pp.242-244.

129) Institutes., II. 2. 18.

130) Institutes., III. 3. 9.

어나는 내적 싸움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물론 이 관계도 인간이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투쟁에 의한 자력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은 단순히 무엇을 유지하는 힘만은 아니다. 칼빈은 성화의 과정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받고, 그 영향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규율을 준수하게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영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사용목적에 강조한다. 그럼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용법이나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자. 첫째 용도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인간의 불의함을 정죄하여 인간 스스로가 그 비참함을 인식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¹³¹⁾ 둘째 용도는 불신자에게 율법에 대한 형벌의 공포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율법의 본래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성령께서 인간 마음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해야 할 기독교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성화의 삶을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율법의 포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131) Institutes., II. 7. 10.

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혀가며, 그것을 납득하여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순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며, 육체의 태만을 극복하여 더욱 선명한 삶으로 전진하게 된다.¹³²⁾

칼빈이 여기에서 말한 세 번째 용도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화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의 형벌은 면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인간의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고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성화의 삶이란 이런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하나씩 벗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해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나그네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성화와 성령

132) Institutes., III. 7. 12.

성령은 신앙을 일으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점차로 신앙을 증진시켜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분이다.¹³³⁾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가?

1) 죄를 깨닫게 함

칼빈은 “날마다 범하는 죄와 우리를 중대한 타락으로 끌고가 오랏동안 묻혀 있다고 보여지는 죄들이 기억에 떠오르고 또 부끄럽게 생각되어야 하고, 육신의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음에 대하여 자인해야 한다.”¹³⁴⁾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죄의 깨달음은 언제나 신앙에서 나오고, 신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일어난다.¹³⁵⁾ 성령은 죄로 물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며,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의 슬픔과 고통이며 이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데서 온다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는 죄를 진정 미워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불쾌하게 생각되어 자신의 비참과 망하게 된 형편을 고백하고, 새사람 되기를 회구하기 때문이다”¹³⁶⁾고 말한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식함으로 좌절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떠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의 긍휼과 은혜 및 구원을 맛봄으로, 자신을 분기시켜서 기운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사

133) Institutes., III. 1. 1.

134) Institutes., III. 3. 18.

135) Institutes., III. 2. 33.

136) Institutes., III. 3. 3.

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워 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의 뜻은 “중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룩하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요구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죽는 것을 말한다.”¹³⁷⁾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과거에 속한 정욕과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생활이며, 이것은 자기부정과 통회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칼빈은 보고 있다. 회개는 중생이요, 중생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써 말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¹³⁸⁾ 그리하여 성령은 성도의 죄를 끊임없이 책망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계속 성화를 촉진시키시는 것이다.

2) 의에 대하여 알게 됨

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6)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를 알지 못하며 의롭고 거룩한 성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의 기본질서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칼빈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파괴되어 버렸다고는 못할지라도, 남은 것은 심각하게 일그러질 만큼 부패해 버렸다”¹³⁹⁾고 말한다.

137) Ibid.

138) Institutes., III. 3. 9.

139) Institutes., I. 15. 4.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는 의를 접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신앙의 시동자이며 한층 더 강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¹⁴⁰⁾ 그래서 신앙의 창시자요 원인으로써 성령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전 2:9-11). 그러므로 이러한 의에 대한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분발해야 하며, 신앙의 목적지와 그 길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¹⁾

3) 사죄의 확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게 한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옵고 자신의 무능력과 죄만 안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다”는 성결도 알게 되었다. 다윗도 침상을 적시고 통회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졌고(시 6:8,9), 바울도 성령을 받은 후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1-36)라고 확신하였다. 성령은 내 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원과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며 사죄의 확신을 결하고는 성화의 생활로

140) Institutes., III. 2. 33.

141) Institutes., III. 2. 1.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¹⁴²⁾

칼빈은 복음의 전체를 회개와 사죄함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⁴³⁾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성령의 성결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다.¹⁴⁴⁾

4) 성화의 완성

“성도의 완전” 혹은 “완전한 성화”들은 실로 난해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난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매력을 주는 용어이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칼빈이 성화의 완전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 불가능한 지상완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전반에 걸쳐서, 성도는 성화와 순결을 위해서 분투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화의 완전성과 완성에 관하여는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한다. 비록 성도는 부단한 전진을 추구해야 하지만, 지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

142) 김성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 영음사, 1976), p.160.

143) Institutes., III. 3. 19.

144) Ibid.

우리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훈련이 계속된다. 그들은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무력을 더욱 깨닫게 된다.¹⁴⁵⁾

이상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칼빈은 성도의 지상완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공로로써 속죄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들려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을 자신할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부단한 투쟁을 계속할 뿐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 역시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들의 선행은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냄새를 풍기게 되며 따라서 신적인 거룩함의 선행은 아직 불가능한 것이다.¹⁴⁶⁾ 더 나아가 칼빈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귀적인 공상이라고”¹⁴⁷⁾ 단언한다. 이것은 칼빈이 성도의 지상 완전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지상 완전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마귀적인 발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칼빈이 지상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기대어 있다. 그래서 그는 성도가 지상에서 불완전한 이유를 ‘용광로 같은 정욕의 잔존’으로 주장한다.¹⁴⁸⁾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그럼에

145) Institutes., III. 3. 1.

146) Institutes., IV. 1. 20.

147) Ibid.

도 불구하고 용광로 같은 정욕이 잔존한다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의 뿌리가 세례 후에도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¹⁴⁹⁾ 이러한 정욕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는 불완전함을 내포하는 완전이라는 용어는 인정한다. 그는 어거스틴이 사용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완전함이라고 해명함으로써 내적인 성실성과 겸손의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의 요소는 인정한다.¹⁵⁰⁾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러한 완전 역시, 불완전함을 내포하는 완전이기에 결국 신적인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칼빈은 성도의 지상 완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성도가 지상 완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잔존하는 정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㉞ 완전의 시기와 성도의 태도

칼빈은 이제 완전의 시기를 논한다. 지상에서의 완전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는 성화의 완전을 내세로 돌리게 된다. 성도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와 합하는 날이, 곧 성도의 참된 완성으로 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그 때에 육신의 정욕과, 죄의 잔존 세력에서의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에서 명백해진다.

148) Institutes., IV. 15. 11.

149) Ibid.

150) Institutes., III. 17. 15.

신자는 모두 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날, 흠이나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한다(골 1:22참조). 그러나 현세에서는 가장 훌륭한 계획도 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완전히 결합될 때 뿐이다.¹⁵¹⁾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빌 1:6).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은 그들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되며, 참으로 자녀답게 되는 때이다.¹⁵²⁾

151) Ibid.

152)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7), p.118.

IV. 칼빈의 인간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칼빈의 인간이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 인간관으로서,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 인식의 빛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준으로부터 그의 인간론을 구성한다. 인간은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깨닫는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죄인으로서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 참된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간의 미래는 희망이다. 칼빈은 결코 인간의 비극에서 끝을 맺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그가 타락한 인간에서 인간의 무능, 약함, 무기력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적극적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처참하면 할수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원형 이시다.

칼빈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전통, 인간의 지성, 인간의 능력에서 희망의 근거를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방향 지워진 존재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할 책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곧 성화의 삶이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딤후 3:4,5)임을 인정해야 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를 회복하기까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엡 2:10).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분을 위해 살고, 그 분을 위해 죽는(롬 14:8)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칼빈은 지상생활은 경시할지라도 결코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지상생활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소명을 주시

고 그 일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곧 이웃을 위한 공동선이 되도록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칼빈이 인간이해에 대한 기본구조로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인간관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진다. 이에 기독교 강요에 소개된 칼빈의 인간이해에 대한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은 교육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신학을 이론적 근거로 한 교육이념은 교회나 가정은 물론 사회 일반교육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육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못한 관계”(necessity but not sufficiency)가 아니라 “필요하고도 충분한 관계”(both necessity and sufficiency)인 것이다.¹⁵³⁾ 따라서 진실한 기독교교육은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신학과 교육과의 정의에서 서로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을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 신학이라면 교육도 이 신학에다 기초를 두지 않고는 교육 그 자체를 연구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학과 교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

153)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연구”, 「신학지남 통권 188호」 (서울 : 신학지남사, 1980), p. 41.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⁵⁴⁾

기독교 교육이란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밝혀주고 있는 교리와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따져 본다면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는 교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의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육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¹⁵⁵⁾

그래서 뵘(Byrne) 박사는 논하기를, ①크리스천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시작되고 결론을 맺는 것, ②기독교 사회에 적합한 결과가 있게 하는 것, ③크리스천에게 균형이 잘 잡혀 있게 하는 것, ④기독교 교육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된다는 것¹⁵⁶⁾등이라 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정의란 신학적 정의 속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신학적인 중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⁷⁾

신학이란 성경에 충실한 기초를 두고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강

154) 김득룡,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98), p. 193.

155) Ibid.

156) H.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pp.32-33.

The nature of Christian Education.

① Education for Christian is an outgrowth of God's interpretation.

② Education is an outgrowth of the Christian world view.

③ To the Christian Education is a well-balanced function.

④ Education for the Christian is conceived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157) 김득룡, op. cit., pp.193-194.

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성령 의존적 신앙으로, 복음을 찾고 설명하는 일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학문이다. 신학교육은 교회가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칼빈은 신학의 위치를 “섬기는 위치”(serving position)에 놓았다. 즉,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돕는 것이 신학의 자리요,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육의 관계는 필요불급한 관계인 것이다.¹⁵⁸⁾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도 신학과 교육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Soli Deo Glora)에 있다.¹⁵⁹⁾

이제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칼빈의 인간이해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과 방법,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장(Place)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58) Ibid.

159)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3), p. 171.

A. 교육의 목적

인간은 교육에 있어서 대상이며 그의 인격은 목적이다. 교육은 “인간을 그 대상으로 가지며 지성과 의지, 마음과 몸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철저히 선한 일을 공급해 준 하나님의 사람(a man of God)으로서 그것을 형성하는 인격에 도달해야 한다.¹⁶⁰⁾

교육은 명백하게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 그 목적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교육은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의 목적이 없이는 교육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교육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상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모든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면 칼빈의 인간이해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창조된 인간에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둘째, 타락한 인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셋째, 구속된 인간에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1. 하나님 중심의 삶

현대교육은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이다. 인간이 그 중심이며, 인간의 완전한 세속화와 절대적인 해방이 그 목적이다. 바빙크는 이

160) Cornelius Jaarsma, 「헤르만 바빙크의 基督教教育哲學」 정정숙 역(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3), p. 162.

러한 인본주의적 철학에 대해서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인생의 개인주의적 양상과 사회적 양상이 어떻게 화해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귀족적인 풍습에서는 집단이 개인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 혹은 마르크스주의 스타일에 의해서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가? “만일 교육의 규범과 목적이 인간 안에 있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포기해야 한다.”¹⁶¹⁾ 현대교육은 그 규범을 개인과 사회를 초월하여 발견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동요할 것이다.¹⁶²⁾

둘째, 하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유한(有限)하며, 의존적(依存的)이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받지 않는 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것도(of himself), 자신을 통해서도(through himself) 아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감각적 존재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다. 이성과 마음, 양심은 인간이 그의 정신적 본질 대신에 제휴하고 있는 고상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 교육을 세속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재적 본질(實在的本質)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자신을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고 선언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변화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절대자를 찾는다. 모든 철저한 사상가도 자기 자신이 만들었든지 자기가 경험 속에서 발견하든지 간에 절대자에게 의존한다.¹⁶³⁾ “인간은 자신 안에 인간을 초월하는 규범을 구성하는 관념의 세계에 대한 불변하며, 배척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

161) H. Bavinck, *Paedagogische Beginselen*, Kampen, 1904, p. 47.

162) 정정숙, op., cit. p. 163.

163) Ibid.

은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며 인간은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생각, 의지,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고 확신한다.”¹⁶⁴⁾ “인간을 교육의 중심과 규범과 목적으로 삼는 현대교육은 인간 자신을 대항하는 악을 범하고 있다.”¹⁶⁵⁾

인간이 아니라, 자신을 절대적인 진리 속에 계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목적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 진리의 척도가 아니라 진리가 그의 표준이다. 진리는 교육에 견고한 기초와 불변하는 규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 고상하며, 영감을 주는 사상을 부여한다. 교육의 주관과 객관은 그 일치점을 진리에서 발견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롬 12:1)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롬 14:8, 고전 6:19).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롬 14:8, 고전 6:19).¹⁶⁶⁾

164) H. Bavinck, op., cit. p. 48.

165) Ibid., 49.

166) Institutes., III. 7. 1.

칼빈이 추구하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기부정”(自己否定 · self-Denial)의 교육내용이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교육을 영어로 표현하면, 「education」이다. 이것은 「educatia」 혹은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것은 “밖으로(e) 끌어낸다(ducare)”는 뜻이다. 그러면 밖으로 끌어낸다면 무엇을 끌어낸다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받을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소질과 능력을 잘 신장 발달시켜 훌륭한 인간상으로 길러낸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형상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피조물로서 완전케 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¹⁶⁷⁾

그래서 17세기의 위대한 교육자 코메니우스(Johan Amos Comeniu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니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 선으로서 창조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¹⁶⁸⁾

167) 김득룡, op. cit., p. 192.

168) C. B. Eavy, *Th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Moody Press, Chicago, 1965. p. 154.

다시 말하면 그의 교육에 있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은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참되고 선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⁶⁹⁾는 것이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전적타락을 강조한다.¹⁷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 등으로 지상생활을 지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인멸되고 그가 구비하고 있던 지혜와 건강과 고결과 진리와 의는 상실되고 그 대신 무지와 무능과 불결과 공허와 최악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전적타락한 존재로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이탈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어야 한다.

169) Ibid., p. 201.

170) Institutes., II. 3. 2.

3. 성화의 삶

앞서 구속된 인간에서 칭의된 인간과 성화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칭의는 첫째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얻은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이다.¹⁷¹⁾ 둘째로 칭의는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셨다.¹⁷²⁾ 즉, 우리는 칭의 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하며, 또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성화된 삶을 이해하고 추구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칭의된 인간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즉,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주권에 의한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성화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선택과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조명을 일차적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교육을 통한 성화의 가능성은 전무(全無)한 것이다.¹⁷³⁾

171) Institutes., III. 11. 2.

172) Institutes., III. 11. 23.

173) 김연희,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과 성화의 관계”, (서울 :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6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자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신다. 이때 성경은 이러한 지식에 대해 믿음의 근거로 보고 있다. 성화에 있어서는 믿음 곧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다.¹⁷⁴⁾ 여기서 이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든 간에 거울과 같고,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¹⁷⁵⁾

결국 믿음은 에베소서 3장 18,19절이 증거 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기초로 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 것이다.¹⁷⁶⁾

이와 같이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나아가 교육을 통한 성화가 충분함을 증명한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이는 성경의 내용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로 되어 있지

174) Institutes., III. 2. 2.

175) Institutes., III. 2. 6.

176) Institutes., III. 2. 7.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 교훈은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분명하고 유익한 형태로 주어지므로, 교육은 성화를 이룸에 있어서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독교교육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내용 또한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그의 교육을 통하여 주시고 계신다. 이러한 교육은 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형태로 놓여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행하도록 하신 명령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성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주시할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한 성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충분성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된다.¹⁷⁸⁾

이와 같이 구속된 인간에서 성화의 삶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성화론을 다룬 부분이 3부 3장에서 10장까지이다. 이 중에서 성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7장 자기부정, 8장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9장 내세에 대한 명상이다. 이 중에서 7장 자기부정은 앞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교육내용으로 다루기로

177) 김연희, *op. cit.*, p. 63.

178) *Ibid.*, p. 64.

하였고, 성화의 삶에서는 8장 십자가를 지는 것과 9장 내세에 대한 명상을 교육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칼빈의 인간이해를 근거로 한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서 세 가지를 분류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성화의 삶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육내용으로서 “자기 부정”,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명상”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B. 교육의 내용

칼빈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하나님이다. 즉 기독교적인 교육은 하나님 중심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칼빈은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육행위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였으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강해하였다. 특히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교육하기에 힘썼다.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난 칼빈의 인간 이해를 통하여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부정의 삶을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타락한 인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된 인간은 매일의 모든 삶을 성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명상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을 교육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부정(自己否定 · self-Denial)

A)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걸음은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육체인 생각을 버려 깨끗이 빈 마음을 성령이 명령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엡 4:23).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된다. 철학자들은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성의 소리를 따르라고 주장했지만,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게 성령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우리의 이성이 성령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항복하며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갈 2:20).¹⁷⁹⁾

그리스도를 새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그리스도께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은 물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미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새주인을 모시는 하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그 새주인에게 맡기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서든 그를 우러러보며, 항상 그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으려는 새삶의 출발점이 된다(마 16:24).¹⁸⁰⁾

우리가 일단 이런 자기 부정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비로소 모

179) 김준수, op. cit., p. 307.

180) Ibid.

든 죄인들에게서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다(딤후 3:2-5).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무장하지 못한 인간은 다음 두 형의 죄인에 속한다. 하나는 넘치는 욕망을 갖고 죄악을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속으로는 자기 칭찬과 자랑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이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수한 죄악이 숨어 있다고 한 옛말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마6:2,5,16;21:31).¹⁸¹⁾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제자도의 첫걸음이다. 자신은 자기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하인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자신을 충성스런 하인으로 그 새주인에게 복종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 즉, 근신과 의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딤후 2:11-14).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철저히 하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경건과 세상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요일 2:16, 엡 2:3, 벧후 2:18, 갈 5:16).¹⁸²⁾

B)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인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든 선과 재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고전 4:7),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기회를 만난 듯 날뛰지 말아야 하고, 또 잘 했을 때는 마땅한 영광과 호의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결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그

181) Ibid.

182) Ibid., pp. 307-308.

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항상 그것을 유지,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¹⁸³⁾

성경은 우리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라고 요구한다(고전 13:4,5).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자 해도 가끔 낙심하는 때가 있다. 내 도움과 호의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인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첫째 되는 이유이자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저들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눈에 자격이 없어 보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을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갈 6:9,10, 마 6:14, 18:35, 눅 17:3).¹⁸⁴⁾

이처럼 자기 부정과 남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기를 마땅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하인으로 여기지 않을 경우 남을 도와주고도 욕을 먹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하인의 입장에 서서, 실망하지도 말고 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C)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바르게 살려면 우리 자신과

183) Ibid., p. 309.

184) Ibid. p. 310.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인께 맡기고 우리는 하인의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끈질기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본능은 다 같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항상 미친 짐승처럼 날뛰려는 기회만 엿보게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경탄스러울 만큼 무서워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야심과 탐욕의 정상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과 비천을 피하려고 비참할 정도로 노력한다.¹⁸⁵⁾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만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하지도 번영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하인은 당연히 주인만 바라고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이다.¹⁸⁶⁾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불통할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운명에 돌렸고, 그 운명은 소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자비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일과 좋은 일들을 가장 공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결국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질병이나, 전쟁이나, 가난이나, 이런 저런 재난에 빠질 때에라도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시 131:1,2).¹⁸⁷⁾

185) Ibid., p. 311.

186) Institutes., III. 7. 9.

187) Ibid.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모든 불행은 종이 주인 노릇 하려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다. 철저한 자기부정은 인간의 행복을 아는 첫 걸음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2.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피조물 거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작은 신(little God)도 아니요, 스스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 곧 궁극자는 더욱 아니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등급의 차이가 아니었다. 사람은 거울 속의 형상이 거울 앞의 원형과 다르듯이,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¹⁸⁸⁾

아담은 생각이나 말 또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는 동안은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 반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다.¹⁸⁹⁾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었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다.¹⁹⁰⁾

188) M. Fakkema, 「기독교 교육철학」 황성철 역,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p. 79.

189) Ibid.

190) Institutes., II. 6. 1.

A) 유일하신 증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다.

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증보자 없는 모든 지식은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없다 (롬 1:16, 고전 1:24).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된다(요 10:9).¹⁹¹⁾

예수님 없는 예배도 거짓 것이다(요 4:22). 우리가 죄 아래에서 완전히 빼앗겼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다(엡 2:12,13, 요 1:4,10, 11:25, 14:6).¹⁹²⁾ 다시 강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다.

B) 옛 언약까지도 유일하신 증보자 없는 믿음은 거짓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도 증보자 없이는 은혜를 준 적이 없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창 17:4, 12:2,3, 갈 3:14). 또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에서 대신 야곱이 택함 받은 것도 다 증보자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롬 9:11).¹⁹³⁾

191) 김준수, op. cit., p. 176.

192) Ibid., p. 177.

193) Ibid.

하나님께서서는 중보자 없이는 인류와 화해할 수가 없으므로 옛 언약 아래 있던 거룩한 조상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롬 5:10, 고후 5:18, 엡 2:13,14, 요일 2:2).

C)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한 약속은 옛 언약의 모든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이다.

구약에서 무슨 위로의 약속이나 교회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깃발이 나부끼곤 했다(합 3:13). 그리고 옛 언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교회의 재건을 말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왕하 8:19).¹⁹⁴⁾

이사야도 완악한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그 유명한 약속을 꺼내놓는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14).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하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선포하고 있다.¹⁹⁵⁾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리고 싶을 때마다 항상 힘써 선포한 것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올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사 55:3,4). 이렇게 옛 언약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4) Ibid., p. 178.

195) Ibid., p. 179.

D)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옛 언약의 예언들을 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듣고 깨달아 직접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구약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부패하긴 했지만,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기억까지 상실하지는 않았다. 보편적인 원칙이란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만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주셨던 다윗의 언약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¹⁹⁶⁾

최 아래 있는 인간은 중보자 없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

칼빈은 기독교론을 다루고 있는 2부 16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각종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희망 저런 희망으로 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만은 생각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부한 축복을 한번 참으로 안다면 이런 불신(不信)이 잠입하지 못할 것이다.¹⁹⁷⁾

196) Ibid., p. 180.

197) Institutes., II. 16. 19.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오로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3. 십자가를 지는 것

A)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스승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고난과 치욕과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십자가는 황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와 땀과 고통의 신음이 배인 고난의 기둥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롬 8:29).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스승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 스승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형편없는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승에 비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내와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곧 교만해지고 곧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된다. 순식간에 인내도 순종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¹⁹⁸⁾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찌르면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누르시면 견딜 자가 없다. 결국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198) 김준수, op. cit., p. 314.

우리는 자기 신뢰에서 탈출하여 겸손의 품에 안기게 된다.

B) 십자가는 좋은 약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는 반대로 악의를 품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고도 계속해서 타락하는 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충동으로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을 내려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한없이 풍부한 재산 때문에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자신의 영예를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그 밖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운 좋은 일들로 거만하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는 십자가의 치료법을 적당히 적용하셔서 우리의 광분하는 욕을 제압하시며 굴복시키신다. …… 하늘 의사께서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친 방법으로 깨끗이 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그냥 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병이 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¹⁹⁹⁾

우리는 너무 악하여 고난 없이는 도저히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없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불신자는 징계를 받을수록 완악해져 악의 노예가 되고, 또 더욱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아들인 신자는 즉시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따르게 된다.

199) Institutes., III. 8. 5.

C) 십자가는 군인의 싸움처럼 영예로운 것이다.

자기 약점이나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는 경우이다. 마치 군인이 나라를 위해 고난과 자기 희생을 치르는 것과 같다(계 14:12).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복된 것이다(마 5:10).²⁰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행 5:41). 우리가 의를 위해 가족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만약 재산을 잃으면 하늘에 재산을 쌓아 주실 것이고, 잠시 여기서 명예를 잃으면 영원한 명예를 확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십자가는 정말 우리들이 사모해야 하는 십자가이다(벧전 4:12,13).²⁰¹⁾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 것들을 현세의 허망하고 일시적인 재산이나 명예 같은 것들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기쁘게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비록 그 십자가 하나 하나가 몹시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를 받는다면 용기와 인내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딤후 4:10).²⁰²⁾

D) 십자가는 물론 아프지만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있다.

십자가가 아무리 아파도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는다. 모든 십자가는

200) 김준수, op. cit., p. 317.

201) Ibid., p. 318.

202) Ibid.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정한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 사실 징벌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비하면 그 징벌이 너무나 가벼워 두려울 정도이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육이 본성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길들여, 겸손과 순종의 멍에를 쓰는 습관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 공정한 일이다.²⁰³⁾

둘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것을 믿으면 십자가를 진 등이 아프더라도 영적인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은 영적인 깨달음과 기쁨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벧전 2:19).²⁰⁴⁾

4. 내세에 대한 명상

A)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게 한다.

우리의 지성은 세상 부귀영화의 허망한 광채에 너무 쉽게 마비되고 만다. 또 우리의 마음도 순식간에 현세에 대한 탐욕과 야심, 그리고 정욕 등에 짓눌려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가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 마치 미친 짐승처럼 지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빠질 수

203) Ibid., p. 319.

204) Ibid.

있는 최악의 함정이다.²⁰⁵⁾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비참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을 끊임 없이 허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끔씩 전쟁이나 난리, 또는 강탈이나 기타 재난 등으로 우리를 아프고 불안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마음의 닳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현세로부터 참 안식을 바라지 못하게 한다. 또는 흉작이나 화재, 부도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우리를 빈곤에 몰아 넣거나, 적어도 풍족한 처지에 있지 못하게 하며 항상 쪼들리도록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미 가진 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결혼생활에만 집착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악한 배우자나 불량한 자식,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한다.²⁰⁶⁾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 등을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불완전하고 허무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한다. 그러한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 현세의 본질을 깨닫고, 또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린 아무도 스스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생각하거나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비로소 이 땅에는 절대 순수한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B) 현세와 내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값어치 없게 본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미

205) Ibid., p. 321.

206) Ibid.

워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현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세의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돕고 촉진시키는 데 전적으로 이바지한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한 선한 아버지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지금 이 땅에서 그보다 훨씬 작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 싶어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²⁰⁷⁾

현세는 내세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은 장차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마다 우선 이 땅에서 싸워 이기도록 정하셨다. 또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현세의 삶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의 삶에 비교하면 아주 무시해도 괜찮고, 완전히 멸시해도 되고, 지독히 싫어해야만 한다.²⁰⁸⁾

물론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지루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소환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곳을 지켜야 한다(롬 7:24, 14:8, 빌 1:23,24). 바울처럼 아무리 죽기를 열망하더라도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자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을 뜨겁게 사모하며 항상 그것을 명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죄로 얽매이기 쉬운 현세의 삶을 지나치게

207) Ibid., p. 323.

208) Ibid.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⁰⁹⁾

C) 내세를 열망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사모하기는커녕, 반대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별별 떠는 것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죽음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지각이 두려움으로 흥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그 공포심을 억제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²¹⁰⁾

짐승들과 나무나 돌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들의 현재 상태를 허무하게 보고, 부활의 날을 동경하며, 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허무함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롬 8:19이하). 그런데 오성(悟性)의 빛에다 하나님의 영의 조명까지 받고 있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²¹¹⁾

신자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도살할 양같이(롬 8:36)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딤후 3:12, 요 15:19).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의 것에 전념하여 현세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절망적인 비관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도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고전 15:19).²¹²⁾

209) Ibid., p. 324.

210) Institutes., III. 9. 5.

211) Ibid.

212) 김준수, op. cit., p. 326.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의 처참한 최후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내세의 놀라운 행복을 늘 잊지 않는다면, 현세에서 당하는 핍박과 재난과 갖은 고통들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시 73:2,3,17, 사 66:24, 마 24:41, 계 7:17, 21:8). 그래서 내세의 소망은 나그네로 이 땅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큰 위안이 된다.²¹³⁾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현세의 삶은 곧은총이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 비교하면 그것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다. 날마다 죽음을 열망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부정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를 통한 구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명상을 교육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213) Ibid.

C. 교육의 방법

기독교 교육방법은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교육관보다 신관에 좌우된다. 칼빈은 교육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이 사실은 그의 교육방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빈의 교육방법을 보면, 먼저 그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성경을 해설하는 설명식, 주입식, 토의식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고, 교회·가정·학교가 모두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칼빈의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하고 강한 훈련 방법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에 성선설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성악설에 그 기초를 두었으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동의 자기발견, 자기사고, 자기활동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 속에 있는 모든 것, 즉 이해와 의리, 영혼과 몸은 모두 타락한 것이라고 하였다.²¹⁴⁾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교회규칙과 법규를 지키는 생활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같은 규율 있는 훈련은 중세기 수도원에서

214)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 Baker, 1975), p. 173.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 즉 책임있는 시민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 된 것이다.²¹⁵⁾ 그래서 그는 엄격하고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중한 벌을 내렸다.

둘째, 단계별 다양한 교육방법이었다.

칼빈은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토의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처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주입식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²¹⁶⁾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법으로 바꾸어서 학년말에는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학생들 스스로가 쓰고 답하게 했다. 특히 교리문답에 대하여는 학생 스스로가 쓰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과정에 올라가면 다시 그의 교수방법은 바뀌어진다. 학생들 스스로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교수에게 제출하고 직접 공개석상에서 구두로 토론하게 했다. 즉, 전문과정에서는 질문식 또는 토의식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가정·학교·교회의 연계교육을 추구하였다.

칼빈은 그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을 학교나 교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가정, 교회에 똑같은 기대를 가졌다. 그는 교육기관을 말할 때 학교만을 언급하지 않고 교회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215) 오인택 외 4인, 「기독교교육론」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p. 134.

216) Ibid., p. 171.

가정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였다. 즉,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보지 않고 가르치는 장소로 보았으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기독교 생활 양식을 훈련시키도록 요구하였다.²¹⁷⁾ 그러므로 학교·가정·교회는 똑같은 교육기관이요 교육의 장으로서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모든 학생들에게 세 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즉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 지도를 받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가정·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교육에 임해야 하며,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²¹⁸⁾ 즉, 어떤 때는 목사나 장로,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에 협력했고, 어떤 때는 목사나 장로들이 학교를 찾아가 격려하며 지도했고, 또 어떤 때는 교사나 부모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실제교육에 임했다. 교육을 어느 한 기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노력했던 것이다.²¹⁹⁾

칼빈의 교육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행동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217)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신청기 역 (서울 :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6), p. 220.

218) Ibid., p. 168.

219) 김영무,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육관에서 본 John Dewey의 경험교육론 비판”, (서울 :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83.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
져야 한다.

D. 교육의 장

기독교 교육에서의 장은 복음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자리(Context)이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변화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교육의 장을 교회·가정·학교, 그리고 국가로 보았다.²²⁰⁾ 학교를 통제하는 힘은 교회에 있었고, 모든 교회는 신자들을 바르게 교육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 우리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의 권위를 교회의 목사와 교사에게 주신 것이다. 이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며, 책망하고 치리한다. 그러나 교사는 목사와는 달리, 치리나 제자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아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해야 한다.²²¹⁾ 즉, 목사는 교사의 직임을 포함하여 다른 직임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구비되어야 하고,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과

220) C. B. Eavey, op. cit., p. 163.

221) Institutes., IV. 3. 4.

나란히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될 직분이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이 두 직책 없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고 하였다.²²²⁾

이러한 교회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또 다른 장(場)인 가정과 학교의 기초가 된다. 칼빈은 교회교육을 모든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의 교육은 교회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교회교육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즉 칼빈에게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기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교육의 연장으로서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²²³⁾ 그러므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교회교육을 그 출발지와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장에서 다루는 교육의 장(場)은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교회교육

유럽인들은 국가와 교회를 개혁시킨 칼빈의 훌륭한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다. 칼빈이 가르친 것은 유럽의 국가나 교회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그 힘이 매우 컸다. 칼빈의 목회는 국가와 교회를 송두리채 바꿔 놓으리 만큼 큰 힘이 있었다.

당시 목사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자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222) Ibid.

223)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

을 필수로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제네바에는 5인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들과 신학교 교사들과 지방의 교사들을 합하여 성교회(聖教會)를 조직하고 이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신학교습과 예배관리와 목사 후보생의 심사와 교리문제 등을 취급케 하였다. 이 밖에도 또 모든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감독원을 두고 일반인들의 도덕생활을 감독케 했다.²²⁴⁾

칼빈의 교육실시의 강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자세와 사람들끼리의 정당한 태도를 밝히는 신앙을 알게 하는데 있다. 즉, ①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권위를 강조, ②신학의 교훈을 강조, ③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강조, ④교사와 설교자의 자질을 강조, ⑤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 강조, ⑥교육에 대한 강조 등임을 알 수 있다.²²⁵⁾

칼빈의 교회 교육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뜻을 직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실과 열심을 다 하면서 기도와 성경연구를 하게 하였다. 특히, 성경을 통해 밝혀주는 교회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였다.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성경을 이해시키는 사명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교회의 제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매주 하루는 제네바에 있는 목회자에게 성경을 바로 주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교육시키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훈련 방법이었다. 이 방법으로 목회자들은 서로 자극을 받아 모두 성경연구를 잘하게 되었다. 칼빈

224)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 「신학지남, 제 29권 제 1호」 (서울 : 신학지남사, 1962).

225) 김득룡, op. cit., p. 51.

은 성경연구를 목회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인 장년들에게도 성경과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다.²²⁶⁾

둘째, 칼빈이 강조한 교회 교육은 교리에 치중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첫 사명이요, 목회자의 첫 본분은 교인들을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전심을 기울여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자가 되도록 보증하는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이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교육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의 목회에 있어서는 성경의 강론인 설교 없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다. 칼빈은 예배의 중심을 성경에 두었다. 성경을 강조하여 기독교의 복음적 교리로서 신자들을 무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기독교강요를 쓴 것이었다.²²⁷⁾

16세 이하의 소년들은 예배외에 신앙교육의 시간을 정하여 성경과 교리문답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했다. 16세 이상이 되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평신도로서 완전한 권리를 얻게 했다. 결국 칼빈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완전한 교리 공부 시키었다. 이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자세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초를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교리문답 위주의 교육도 교인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특히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 철저하게 교리공부를 하게 하는 습관을 익히게 하였다.²²⁸⁾ 이런 교육은 오늘날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226) Ibid., pp. 51-52.

227) Ibid., pp. 52-53.

228) Ibid.

있는 것이요, 해야 할 것으로 느껴진다.

셋째, 칼빈의 교회교육은 모든 성례의식에 있어서 비복음적 요소를 제거하고 간소화시키며 동시에 예배의 의식을 회중화 시키려는 데 있었다. 교회의 모든 장식들은 우상숭배의 흔적이라 하며 모두 벗겨 버렸다.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만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초상이나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은 일체 금하였다.²²⁹⁾

넷째, 칼빈의 교회교육은 칼빈이 교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권징의 시행에 힘쓴 것이다. 칼빈은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일정한 도덕생활의 표준을 요구하였다. 물론 그는 교인들의 도덕적 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면과 목회적 권고를 행하였으며 권징을 최초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권징의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했고, 이 권징은 목사와 더불어 경건한 장로들에 의해서 시행될 것이라 했다.²³⁰⁾

다섯째, 칼빈의 교회교육은 교회정치 문제에 있다. 칼빈은 교회의 직원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네 가지로 규정한다. 4직위로 교회의 직분을 정한 것은 교회의 생활과 기본사업을 ①말씀의 전파, 예배, 성례(목사), ②기독교교육(교사), ③권징의 집행(장로), ④병자와 가난한자의 권고와 재정관리(집사)에 있다.²³¹⁾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생활했고, 그 생활대로 교회교육을 해 가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 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칼빈의 중심을 읽을 수 있다.

229) Ibid., pp. 53-54.

230) Ibid., p. 54.

231) Ibid., p. 56.

2. 가정교육

칼빈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주셨다(엡 6:1-4)고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가정의 부모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이다(시 78:4). 따라서 칼빈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부모나 성인들처럼 분명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곧 언약에 그 신학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신 10:16, 30:6, 렘 4:4),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²³²⁾

또한 유아세례는 그 모본을 무엇보다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9:13-15)고 하시면서, 유아들을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해 그의 뜻을 행동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이다.²³³⁾

즉,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갖으며 교회의 동등한 회원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칼빈 당시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은 물론 모든 집안 식구들에 이

232)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제네바 신앙교육서 연구”, 「교사의 벗 제 12호」 (서울 : 한국기독교 교육연구회, 1988), pp. 155-156.

233) Institutes., IV. 16. 7.

르기까지 모두가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했고,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세례식 때 교리문답 테스트를 받고, 자녀를 향한 교리교육에 대해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해야 했다. 그래서 부모는 매 주일 정오에 규칙적으로 자녀를 교회에 보내어, 교리문답수업을 받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자녀의 이러한 교리교육을 돕기 위해 부모가 먼저 교리문답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부모들의 일차적인 과업은 자녀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리란 하나님을 향한 단지 지적인 앎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앎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교리교육을 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본이 되는 것이다(히 1:2-5).²³⁴⁾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침을 통해 자녀 곧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형체이자,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교육의 연장으로서, 교회의 구성과 존속이 지속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가정교육은 교회의 목회사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3. 학교교육

칼빈이 26세에 기독교강요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234) 김연희, op. cit., p. 50.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칼빈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일찍 쓸 수 있었는가?” 단순히 이것은 칼빈의 개인적 천재성으로만 돌리는 것보다는 그와 더불어 당시의 교육적 환경이 결합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즉, 그 시대의 지적 엘리트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적 환경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다. 칼빈이 공부한 당시의 주된 교육방식은 토론과 논술이었다. 칼빈은 일찍부터 토론과 논술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특히 칼빈이 살았던 시대의 인문주의는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었다. 당시 인문주의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사학’이었다. 즉 자신의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훈련은 지적훈련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칼빈 당시는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교육이 활발해졌고,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에 있어 인문주의적인 개혁과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칼빈의 교육과정이나 방법이 외면상으로는 인문주의와 비슷한 교육사상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시도들을 실행하였다.²³⁵⁾ 그는 단순지식 전달이나 학생의 잠재력 개발 혹은 인간성의 완성이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목사양성과 국가에서 필요한 건전한 시민양성에 두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르는” 기독교교육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었

235)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초급 교육과정(예과)과 고등교육과정(본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등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인 교육을 했다. 또한 후자에서는 신학, 구약주해, 히브리어 외에도 철학 및 예술 등을 첨가하여 신학교육을 했다.

다. 즉, 인간을 그 사상적 출발점으로 두는 인문주의와는 달리 칼빈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자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비단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인문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했다. 이어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특별계시 뿐만 아니라 일반계시의 영역에서도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옳은 일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했다.²³⁶⁾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과 참 학문은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칼빈의 이러한 신념은 기독교강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 면에서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이 특수한 힘은 명백해진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를 매혹시키며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에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

236) 헤르만 바빙크, “칼빈과 일반은총”,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저(서울 : 기독교문사, 1989), p. 131.

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²³⁷⁾

칼빈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통로로서 학교를 통한 사회개혁에 관심을 두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와 인문학교의 개혁에 힘썼고, 후에는 대학을 세웠다. 그에게 있어 학교는 단지 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교리문답과 성경이 가르쳐져야 했고,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며, 주일예배와 성찬참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했다. 학교는 교회의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심화하는 교육을 교회와 연계성 있게 해야 했던 것이다.²³⁸⁾

즉, 교회와 학교, 또한 주일예배와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서로 심화하고 보충하며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은 교회교육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인문주의 교육이 범함하던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독특성이기도 한 계시 의존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는 제네바 사회에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시행해 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육만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성화된 인재 양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칼빈의 학교교육 역시 교회교육과 그 이념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교육의 장(場)으로서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에 대해

237) Institutes., I. 8. 1.

238) 양금희, op. cit., p. 143.

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교육을 모든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으며, 그 외의 교육은 교회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교회교육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장소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기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교육의 연장으로서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원론적인 신앙은 교회 안의 교육만 강조한 나머지 실제 삶 속에서의 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온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 교회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비롯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적 사조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낙관적인 인간론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다윈, 프로이드, 마르크스 등의 과학적 인간론이 현대사상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헤겔 이후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 했고, 또 사람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포이에르바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인간이 논하므로 신학은 결국 인간론, 혹은 인간학이라고 했다.

작금에 와서 현대 과학은 유전자(gene) 조작을 통하여 인간의 온전한 복제를 가능케 하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생명공학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망각시켰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신학적 전통적인 인간이해를 왜곡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한 인간이해를 고찰 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 인간관으로서,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 인식의 빛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빈의 인간이해의 구조나 내용, 성격 등은 내적으로 연관성을 가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서 속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흔히 “구속사”라고 부르는 신학의 전통적 관점과 같은 범주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조된 인간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타락한 인간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 실제적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구원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인식하는 것이 칼빈 신학의 중심주제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간의 미래는 희망이다. 칼빈은 결코 인간의 비극에서 끝을 맺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그가 타락한 인간에서 인간의 무능, 약함, 무력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적극적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처참하면 할수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원형 이시다.

칼빈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전통, 인간의 지성, 인간의 능력에서 희망의 근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속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할 책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부정”(기독교강요 3부 7장)과 “십자가를 지는 것”(기독교강요 3부 8장)과 “내세에 대한 명상”(기독교강요 3부 9장), 곧 성화의 삶인 것이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점점 무기력하게 하는 악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거대한 문명 앞에서, 거짓과 폭력이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 사회 구조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독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독교교육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열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전세계 속으로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0)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위임받았다.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형태와 목적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교회가 교리적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고 중세 암흑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많은 성직자들이 또한 문맹이었으므로 그림이나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육이 제공되어졌다.²³⁹⁾

기독교 교육은 신학에 종속되거나 또는 교육학에 종속되어지는 학문 영역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학은 교육행위에 대한 학문적 정리라는 점에서는 일반 교육학과의 대화가 불가피하면서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²⁴⁰⁾

기독교교육은 신학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교육은 먼저 하나의 삶과 신앙의 사건이고 역사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건이란 기독교 복음이 인간과 그들의 삶 속에 전파되고, 전파된 그곳에 인간들의 응답이 일어나며 전파된 복음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그곳에 삶과 역사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사건을 말한다.²⁴¹⁾ 따라서 기독교교육이 복음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포괄적 사건을 말한다면 인간의 응답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그 목적과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 신학으로부터 다양한 기독교교육을 접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칼빈 신학의 인간이해를 근거로 하여 기독교교육을 고찰해 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지금까지 고찰한 칼빈의 인간 이해를 근거로 한 기독교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창조된 본래 상태로의 인간회복이라 할 수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

239) Institutes., I. 10. 3.

240) 은준관,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교육학」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p. 26.

241) 은준관,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 과제”, 「신학사상 IV」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74), p. 11.

로 다시 화목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인간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회복을 위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고 삶의 전체적 영역에서 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맹점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그 교육된 바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칼빈의 인간이해를 근거로 한 기독교교육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그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장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교회와 삶의 구체적 영역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됨을 알 수 있다. 즉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적이고 연대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핵가족 시대에서 나타나고 가정교육의 부재와 결손가정의 증가로 나타나는 청소년문제, 탈선, 및 범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칼빈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의 산물로 보고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철저한 교육훈련과 엄격한 금욕주의, 절제 및 인내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 기독교교육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을 통해 (마 28:20),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루어지기를 소망하며(마 6:10), 그리스도인이 올려야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엡 1:6)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8.
- 김성한. 「칼빈주의의 해설」. 서울: 엮음사, 1976.
- 김종흡. 「삼위일체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김준수. 「디지털 기독교강요」. 서울: 규장문화사, 2002.
-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서철원. 「기독교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오인택 외 4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이오갑. 「칼빈신학 해설」.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종성. 「신학적 인간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8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한국성서협회, 1986.
- _____.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 지동식, 이장식, 김규영. 「서양 중세사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 최홍석. 「사람이 무엇이관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생명의 말씀사, 2000.
- 한춘기. 「교회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출부, 2000.

<번역서>

벤자민 B. 월필드 저.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
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_____. 「칼빈 성경주석」.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편. 제 3권-요한복음.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_____. 「칼빈 성경주석」.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편. 제 7권-로마서.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_____. 「칼빈 성경주석」.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편. 제 8권-갈라디아서.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신청기 역. 서울: 한국기
독교교육연구원, 1986.

Cornelius Jaarsma. 「헤르만 바빙크의 基督教教育哲學」.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Henerr, I. C. 「폴 탈리히의 그리스도교의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M. Fakkema. 「기독교 교육철학」. 황성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

육연구원, 1982.

Stumpf, S. E. 「서양 철학사」. 이광래 역. 서울: 종로서적, 1983.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_____.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기독교문화시협회, 1992.

헤르만 바빙크. “칼빈과 일반은총”.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저. 서울: 기독교문사, 1989.

휴 T. 커어 편. 「칼빈의 기독교강요」. 유원열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양 서>

Augustine. "*Regeneratus non regenerat filios carnis, sed generat*".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 II*. xl. 45 (MPL 44. 407; 영역, NPNFV. 253).

Bavinck, H. *Paedagogische Beginselen*. Kampen, 1904.

Byrne, H. W.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Zondervan Pub. Co., Grand Rapids, 1961.

Eavy, C. B. *Th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Moody Press, Chicago, 1965.

Hodgs,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Mackinnon, James.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 Rusell & Russell Inc., 1962.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 Lutterworth, 1952.

Towns, Elmer L.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 Baker, 1975.

<논문 및 잡지>

김영근.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영무.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육관에서 본 John Dewey의 경험교육론 비판”. 서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연희.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 교육과 성화의 관계”. 서울: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인택. “기독교 인간학 사설”. 「교회와 신학, 제 XIII집」.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1980.

이수영. “칼빈주의 신학의 몇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창간호」. 서울: 장신출판부, 1985.

이준양. “칼빈의 인간이해”.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형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에 있어서 선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개념”. 「교회와 신학 제 13집」, 1981.

은준관.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교육학」.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_____.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 과제”. 「신학사상 IV」.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4.

정규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신학적 인간이해”.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전경련.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27권. 서울: 기독교서회, 1984.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제네바 신앙교육서 연구”. 「교사의 벗 제 12호」.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회, 1988.

정정숙. “기독교 가정의 신학적 기초”. 「개혁신학 제 V집」.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교, 1979.

최인선.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인간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황성남. “존 웨슬리와 존 칼빈의 인간이해 비교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_____, “_____”. 「신학지남 통권 188호」. 서울: 신학지남사, 1980.